

함께
토론
합시다

물 절약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 시급하다

글_ 이현정 (고등학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이며 그 심각성이 크다는 사실을 몇 달 전 신문에서 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물의 소중함을 몰랐던 저는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인터넷과 여러 언론매체들을 통해 접한 '물사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규모라던가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물부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남의 얘기 듣는 듯 흘려버리기 일쑤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문제임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무관심은 마땅한 사회적 제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TV나 신문 등에서 물절약 광고나 포스터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지만 과연 눈여겨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이 사이트를 알게 된 것도 신문 구석에 난 조그만 기사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많이 알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회적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물절약을 위해 어떠한 사회적 제도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물 쓰듯' 물을 쓴다면 이 나라가, 우리의 지구가 어떻게 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I love water.



[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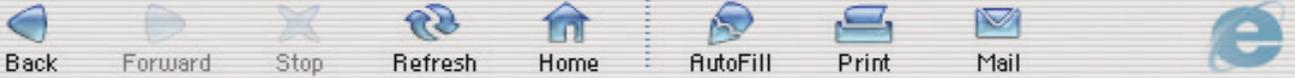
- *정명규: 사회적 제도가.. 일단 거창하고 대단한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수의 날 제정, 절수의 날 제정. 이것은 어느 분이 물절약 아이디어로 제시한 것 같은데, ㅋㅋ 암튼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 *송은영: 포스터를 많이 보고 물을 아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소마: 전 이제까지 물부족 국가를 잊은 채 살았네요. 저도 물을 아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호한: 사회적제도로 인한 적극적인 해결 방법은 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작은 활동은 각자 쉽게 할 수가 있고 이런 활동들이 조직화되면 무시 못 할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 *배병철: 공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물 사용량이 평균치 이상 사용하는 곳은 물 사용료를 1.5~2배정도 인상하여 부과하면 당장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물을 아껴 쓸 것이라 생각합니다.
- *영 주: 우리는 물부족을 잘 알고 있지만, 잘 실천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물절약에 힘씁시다.
- *김종팔: 물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물
절약
방법
알려
주세요

물사랑의 새해

글_ 김정수 (주부)

희망의 2004년 해가 문지방에 타오르고 있는 이 순간 물사랑 가족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한 물의 기운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식적인 물사랑의 해가 2003년이었던.. 올해 2004년이야말로, 우리네 생활 속 물사랑의 실천이 진정으로 요구되어야 마땅한 해인 것입니다. 누구나 '물사랑'이라고 하면.. 도대체 물사랑은 무엇이며, 그 실천은 너무나 험난하고 생가신 일이라고 여기십니다. 물사랑의 진실을 몰랐던 물사랑의 가족이 되기 전의 그 순간까지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물사랑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흠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대한민국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물사랑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밝아온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물사랑 지킴이가 되어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밝혀 나아가는데 함께 동참하였으면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조차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뿐인 우리의 인생,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의 최대 목표이며 꿈이 아닐까 합니다. 물사랑의 새해에도 지난 해 못지않은 변함없는 물사랑의 실천, 우리 모두 함께 생활화하는 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하나 이곳에 남기며~~~~ 물사랑 지킴이 여러분 모두모두 파이팅~!!!



Address: http://www.ilovewater.or.kr go

- Favorites
- History
- Search
- Scrapbook
- Page Holder

생활 속의 물절약 실천 방법

글_ 황나준 (공무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청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절약 업무를 맡고있는 황나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3년이 지나가고 아름다움이 샘솟는 갑작스런 한해가 밝아왔습니다 물사랑 가족여러분 가정 구석구석 복이 넘쳐나시길 소망하며 몇 년간 물절약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올립니다. 살다 보면 여러 형태로 잔치가 많이 발생합니다. 돌잔치, 집들이, 환갑잔치 등을 통하여 남을 대접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쁨은 기쁨으로서 재미있고 좋지만 끝나고 나면 해결해야 뒷정리 먹다 남은 음식, 술 등이 남습니다. 특히 맥주는 김이 빠지면 아무짝이 소용이 없는 음료수일 뿐 아니라 그걸 하수도에 그냥 버리게 되면 엄청난 오염을 유발시킵니다. 이러한 김빠진 맥주 활용법을 가족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빠진 맥주 반 컵과 식초 7방울 섞으면 무공해 천연 삼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어느 가족이 싼뜨물 사용법을 말씀하였는데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 적어봅니다.

첫째, 싼뜨물로 세안 시 특히 여성분들이나 피부가 약한 분들은 얼굴 등 피부가 따가울 수 있으니 한두 번 씻은 물에 사용한다. 둘째, 화장실에서 물 좋은 자반고등어를 사와 바로 요리할 경우 찌뚱이 날 수가 있으니 고등어를 싼뜨물에 한 시간 정도 담가 간기를 빼어 사용한다. 셋째, 국을 조리할 시 쌀 씻은 물로 요리할 시 국물이 진합니다. 넷째, 아파트 등 화단이 있는 가족들은 화초를 기르는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힘을 이룰 수 있음을 생각하며...



적당의 미를 강조한 컵

글_ 안상은 (중학생)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일본의 컵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따르면 새지 않지만 좀 많이 따랐다 싶으면 넘치는 컵 말입니다. 그 비밀은 가운데의 작은 구멍에 있었는데요, 물이 어느 정도 수위에 다다르면 따랐던 물 모두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런 컵을 대중화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괜히 한 컵 가득 따라서 몇 입 마시지도 않고 버리는 아까운 물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부 빠져나가는 물을 보면서 어른들, 또한 어린이들에게 물을 낭비하지 않게 경각심을 길러줄 수 있겠습니다.



[Re]

*이경마: 그런 컵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생활화 하면 좋겠네요.^^



※본 글은 한국상수도협회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원문 그대로 발췌하였습니다.



Address: http://www.ilovewater.or.kr



물사랑 일기

2003_11_26

물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choikj1020님 (초등학생) | 우리 서로 물을 아깁시다. 물을 아껴야 우리세상은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세상은 더럽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수가 없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니 버리거나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물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물이 없는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끔찍하다는 것은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지요. 물을 못 마셔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지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병에 걸려 죽고 목이 마르죠. 그러므로 물은 참 소중한 것 불이 날 때도 꺼주죠. 만약 물이 한 병 있다면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자기가 먹는다고 서로 싸울 때도 있죠. 그래서 서로서로 다치죠. 그러니 우리 서로 도우면서 물을 아끼면서 삼시다~~~~

2003_11_26

물 부족 NO!

naburi94님 (초등학생) |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물을 낭비한 것 같다.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 중에 한나라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물을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쓸 것이고, 물을 오염시키지 않게 샴푸를 되도록이면 쓰지 않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나 혼자만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한국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 더욱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물을 보호하고, 또 물을 아껴야 한다. 예를 들면 씻고 수도꼭지를 꼭 잠그지 않아서 물이 계속 나오면 물을 낭비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이 이렇게 오염되고 낭비된 것이다. 앞으로는 나도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되도록이면 내가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물 부족 나라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물이 넘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물이 부족할 일도 없어서 물을 못 쓰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2003_11_26

소중한 물을 아끼자!

hong3685님 (초등학생) | 우리나라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을 우리 모두가 아껴야 합니다. 세수 등 많은 것을 할 때에도 물을 아껴야 합니다.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물이 정말로 필요 할 때, 쓰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이 물을 아껴 쓰지 않아도 내가 먼저 실천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나라도 아껴 쓰면 물을 절약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소중하겠지요. 저는 물사랑 일기를 쓰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제가 말 한 것처럼 꼭 물을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것을... 또한 다른 나라가 물이 부족할 때는 우리나라가 물을 줄 수 있도록 물을 소중하게 써요.^& 왜냐면 물이 우리보다 부족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꼭 물을 아껴 써서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요 꼭~~~~!!!!!!^o^

2003_11_27

목욕 시 사용하는 물

wlove님 (고등학생) | 오늘, 물사랑이라는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다. 메일이나 게임사이트는 많이 가입했으나 정작 이런 사이트는 관심을 갖지 않고 가입조차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가입을 한다. 오늘 내가 사용한 물 사용에 대한 반성을 해보려 한다. 난 목욕을 매일 한다. 행동이 느리기도 하고, 물이 따뜻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물만 끼얹어서 한번 씻는 데만 대략 20분이 걸린다. 샴푸나, 비누칠 할 때는 물을 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헹구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물을 끼얹는다. 그냥 물이 따뜻한 게 좋아서 하는 행동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된 행동인 것 같다.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시간낭비에 덤으로 물 낭비까지 하는 짓인 것 같다. 오늘에서야 후회를 한다. 앞으로는 다 헹구었으면 바로 바로 나와야겠다.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물은 받아두었다가 빨래할 때 사용해야 되겠다. 엄마가 항상 물을 버리지 말고 받아놓으라고 하는데 행여나 빨래에 때가 붙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그냥 버렸는데, 이곳에서 뉘우치게 되었다. 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숙한 고등학생이 되어야겠다.



2003_12_9

단수

hjdk728님 (주부) | 가끔 수도관 공사로 인해 단수되는 날이 있다. 그런 날이면 으레 물을 받아놓지 않으면 불편 할까봐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았다. 그런데 결국 그물을 거의 쓰지도 못하고 저녁이 되면 욕조를 써야 하기 때문에 물을 어쩔 수 없이 버렸다. 그럴 때면 더운 지방에선 물이 부족해서 몇 km를 걸어 물을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부끄러울 때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조금 불편해도 참고 변기에 쓸 물만 받고 물을 받지 않았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아까운 물을 버리지 않아 나의 마음도 한결 좋았다. 이렇게 내 가까이에서부터 물을 아끼는 방법을 실천해야겠다.

2003_12_30

남편은 어이없어 하지만

kulaegi님 (주부) | 며칠전 세탁기를 새로 구입했다. 신랑은 호수를 구멍안으로 집어넣으라고 했지만 내가 고집 부려 밖으로 빼놓았다. 행군 물이 두 번째 세 번째 물은 그런대로 깨끗하니까 애벌빨래 할 때나 화장실 청소할 때 받아서 쓴다고 하니 남편은 알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었지만 내 고집대로 호수는 밖으로 빼놓은 상태다. 베란다에서부터 욕실까지 짹짹거리며 물을 옮기는 나를 보면 신랑은 왜 사서 고생이냐고 하지만 그래도 얼른 와서 자기가 들어다 욕실에 둔다. 힘도 좀 들고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 ^^



2004_1_3

새학기 새 마음, 새 뜻

wheni30님 (주부) | 물사랑 회원에 가입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다 할 물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 같아서 먼저 죄송스럽다. 새해엔 새 마음 새 뜻으로 정말 물사랑을 실천해 보고자 물사랑 일기를 쓰기로 했다. 오늘은 밀린 빨래를 해야 하는 날이다. 늘 하던 대로, 흰 빨래를 세탁만 먼저하고 다시 꼬집어내서 삶은 것과 안 삶은 것을 분류한 다음 흰 빨래 세탁한 물에 색깔 빨랫감을 집어넣고 세탁, 행군, 탈수까지 끝낼 것이다. 그러면, 세제도 아끼고 물도 아끼는데... 문제는 마지막 행군 물이다. 마지막 행군 물도 받아놨다가 써야 하는데, 우리 집 세탁기 놓는 장소가 좁아서 늘 받아서 써야지 하면서도, 허리 굽혀 머리 숙여 비좁은 데로 들어가서 하는 게 귀찮아서 철철 흘려버리고 말았다. 오늘은 꼭 받아서, 흰 빨래 행군 물로 다시 쓰리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행군 물은 또 다시 화장실 뒷처리용과 걸레 빠는 물로 대신하리라. 가정주부의 손끝에서 내 집 살림과 나라살림이 오고 가는 것. 그래, 결심했다. 우선 나부터라도 진정한 물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파이팅!!!

2004_1_5

오늘..

haa951님 (중학생) | 오늘은 아침부터 물을 많이 썼다 그리고 많이 먹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욕조에 물 받아놓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 물로 화장실 청소를 한 후에 한 번 더 다시 물을 틀어서 화장실을 청소 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 아깝다. 그 물이면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기아나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물 5잔째다. 아까 9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다, 목감기로 인하여... 따뜻하게 데워서 먹고 있다. 이렇게 물을 끓이는 데도 물은 조금씩 기체가 되어 날아갔다. 난 요즘 물을 너무 많이 쓴다. 물을 틀어놓고 화장실에서 나온 적이 있어 1시간가량 정도 물을 틀어놓았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 했었나 부다. 이제부터는 아껴 쓰고 다시 쓰고 절약하여 써야겠다. 오늘의 일기 끝~ ☺